

보도해명자료

(16.6.2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'해외자원개발 10년 계획' 2년만에 폐기하려는
산업부(16.6.2. 이데일리)

1. 기사내용

- ☐ 산업통상자원부가 불과 1년여 전에 만든 해외자원개발 장기계획안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방안 검토중
 - 재작년엔 '공기업 사업역량 강화', 검토 개편안은 통폐합-민관이관, '성공불용자' 재정지원도 중단 고려
 - 국조·감사 외풍에 졸속 개편우려, 정권 바뀌어도 관성, 지해야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☐ 제5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은 과거 물량 확대 중심의 정책목표를 국가 자원개발 역량제고로 전환하고,
 - 핵심주체도 공기업과 민간이 함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
- ☐ 다만, 산업부는 최근의 저유가와 글로벌 자원개발 시장의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, 이는 5년 단위로 수립되는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보완하는 성격임
- ☐ 보도내용중 성공불용자 관련, 연구용역에서도 성공불용자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,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해 산업부는 성공불용자 재도입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계획임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이승렬 과장 (044-203-5140)
양동우 서기관 (044-203-5143)